"北 6자회담 재개 필요성 공감"

보즈워스 특사 귀환 "복귀 시기는 두고 봐야"

"김정일 안 만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10일 서울로 돌아온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자회담 재개여부와 관련, "미·북 양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동의했으며 9·19 공동성명 이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북한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이는 6자 당사자간에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9·19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 "공동성명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정도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며 "9·19 공동성명에서 우리가 이행했던 작업을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또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언젠가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에 대한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고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0일 외교통상부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즈워스 대표는 이어 "북한측에 9·19 공동성명의 모든 요소의 완전이행에 대해 확인하고 의지를 확인해줬다"며 "모든 요소는 비핵화, 평화체제, 6자회담 당사국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지원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주장과 관련, "(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의 발표가 있었지만 우리가 대화를 재개하게 되면 중요한 문제로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및 친서소지 여부와 관련,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이 바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후 서울에 도착한 뒤 평양방문 내용을 본국에 전화보고했으며 앞으로 며칠간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결과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타미플루 50만명분 북한에 제공"

玄통일 "북 우리측 지원 수용" 밝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우리 정부의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의사를 수용한 것과 관련,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북한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북한에 신종플루 치료제를 얼마나 제공하는가"라는 질의에 "북한이 신종플루 확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치료제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순수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의사를 밝혔고, 북한도 오늘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며 "북한에 조건없이 매우 신속하게 치료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종플루 치료제의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북한에서) 상황이 확산하면 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의주와 평양에서 'A(H1N1)형 돌림감기(신종플루)' 확진환자 9명이 나왔다며 신종플루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연합뉴스

中 시진핑 부주석 16~19일 방한

중국의 차기 국가주석으로 유력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16일부터 한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정부가 10일 발표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부주석이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시진핑 부주석이 14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부주석은 1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 한·중 관계 발전방안과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비리 삼진아웃제·감사관 개방형 공모

전남도 '공직자 부패 근절방안' 마련

전남도에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3번 적발된 공직자들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비위로 사법당국에 적발된 공직자는 기소 즉시 직위해제되며, 공직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는 형사고발된다. 내부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관도 개방형 공모직으로 바뀐다.

전남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사회 부패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부패공직자 3진아웃제나 금품 제공자 형사처벌 등의 대책은 서울시 등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세부 적용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공직부패 근절에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공직자 자존심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패근절 대책에는 직무관련 부패행위 3회 적발시 해임·파면 등 중징계(삼진아웃)하며, 해당 공직자는 전남도 투자·출연기관 취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패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비위 혐의자는 사법당국의 기소 즉시 직위해제하며, 공금횡령에 연루된 공직자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부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관과 공직감찰담당(행정5급)을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본청 실·과 감찰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정가 라운지

민주 "당직자 지방선거 출마 땐 선거 4개월전 사퇴해야"

○…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시·도당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시·도당 사무처장은 선거 4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10일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공직선거시 선거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각종 당직에서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마련, 민주당의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 주요 당직을 사퇴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선거 준비를 못 하는 경우를 대비했다.

박재순 "광주 U대회 국회특위 서둘러야"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2여수박람회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를 위한 국회 특위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구성안이 원내대표 등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유치 결정 6개월 내 법인자격 보유 규정과 2010년 1월까지 조직위원회를 설립도록 한 규정을 어겨 국제적인 신인도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의회 '돔구장 특위' 구성하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돔구장 건설과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론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돔구장 건설과 신도시 개발 문제를 다룰 '돔구장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 11일 오전 10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시의회 한 의원은 "돔구장 건설은 문화체육정책실 소관으로 행자위에서, 신도시 개발은 도시건축국 소관으로 산건위에서 다뤄지게 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 시점이 비회기라는 점을 고려해 특위 구성이 검토돼야 한다"며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돔구장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호선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내겠다"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천호선 부위원장은 10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독자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참여당 창당이 야당 분열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며 "민주당 독점 폐해가 극심한 호남에선 선의의 경쟁을, 수도권 등 경합지역에선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황세연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정부 인사들을 포함해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광주시민이 믿어도 될 만한 인물이 있고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은 오는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당대회를 갖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